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Slow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가 대동맥을 가로지른다. 초당 약 40cm를 이동한다. 빠른 속도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신선한 산소와 각종 영양소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피가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른다.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있는 뇌, 우리 몸의 남은 찌꺼기를 없애야 하는 신장,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척나의 골격근, 어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나의 정체성은 혈액이다. 나는 심장에서 조금 전에 나왔다. 지금은 그저 열심히 달리고 있을 뿐이다. 달리면서 생각해 본다. 이렇게 달려서 도대체 나는 어디에 도착하는 것일까? 두려운 마음도 든다. 어떤 영화감독의 말이 떠오른다. "도착해 보니 지옥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추월했다."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도 되지만 혈액인 나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혈관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나 혈관 안에만 있으면 몸이 살지 못한다. 어느 순간에는 혈관 밖으로 나가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이산화탄소와 대사산물을 받아 가지고 다시 폐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당 40cm의 속도로 이동하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혈액을 보호하는 대동맥은 상당히 두껍다. 수술 시 가끔씩 대동맥을 건드려 보지만 웬만해서는 찢어지거나 터지지 않는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혈액의 안전을 위해 구조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필요로 하는 장기에 적시에 도달한다'가 지상 과제이다. 여유 있게 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하루에 십만 번을 뛰는 심장 박동에 따라 대동맥에서 각종 장기에 들어가는 분지동맥으로 혈액은 끊임없이 이동한다.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생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생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나는 이제 대동맥에서 장기로 들어가는 고유한 동맥 속으로 들어왔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바쁘기는 마찬가지이다. 뇌에서, 신장에서, 대장에서 그리고 근육에서, 조금 좁아진 동맥을 따라 최종 목적지를 향해 전진한다. 그런데 대동맥에서 느꼈던 환경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대동맥에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저 앞으로 갈 뿐이었는데, 속도가 느려지니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에 왜 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지?

대동맥에서 각 장기로 가는 분지동맥을 지나면 모세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생명 현상을 위한 실제적인 산소 교환과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모세혈관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인 것이다. 대동맥의 단면적은 보통 5cm²이다. 그러나 모세혈관의 단면적은 약 6000cm²이다. 약 1200배의 차이가 난다. 모세혈관에서는 혈액이 초당 약 0.03cm 정도 이동하는데, 대동맥보다 약 1300배나 느린 것이다. 느리다. 그러나 느려야 살 수 있다. 이곳에서 빠르게 이동하면 우리 몸이 죽는다. 몸의 각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대사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모세혈관 속으로 들어왔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곳은 느낌의 미학이 가장 중요한 곳이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필요를 채우고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이곳의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 농도, 온도, 혈압을 체크한다. 이것들에 따라 내가 기여해야 할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본다. 산소가 부족하다면 더 많은 산소를 줄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면 모두 갖고 갈 것이다. 이곳에서 나는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

모세혈관을 떠난 혈액은 모세혈관보다는 빠르지만 대동맥보다는 많이 느린 초당 약 15cm의 속도로 정맥을 따라 다시 폐로, 심장으로 이동한다. 이제 속도도 적절하고 여유도 생긴 듯하다. 이제 폐로 가서 새로운 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면 다시 심장으로 간다. 그곳에서 심장의 힘찬 박동에 따라 또 다시 대동맥으로, 모세혈관으로 이동할 것이다. 영원한 빠름도, 영원한 느림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 몸의 섭리를 따라 다시 현장으로 갈 것이다.

목표에 다가갈수록 느려져야 한다. 모세혈관은 그렇게 말한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면 느려져야 한다. 그래야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 모세혈관 속 혈액의 본질은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두 공급하는 것이다. 답답해도 할 수 없다. 시간은 반드시 채워져야만 지나간다.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천천히 가야 한다. 여기는 모세혈관이니까. 🍷